



▲주목동작 '펭귄 가족'

올 여름 자녀와 함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예술을 입고, 문화를 배우자.

광주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녀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와 우리 문화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창의력 키우는 이색 전시=소화기로 만든 펭귄, 키보드로 만든 뱀, 타이어로 만든 고양이 등.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9월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반쪽이의 상상력 과학관' 기획전전을 연다.

전시에는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유명한 만화가이자 입체조형예술가로 활동중인 최정현씨가 일상의 생활 폐품과 고물들을 이용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다.

다리로 만든 펠리컨, 페타이어로 만든 청설모 등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재치가 어우러진 작품 160여점이 전시된다.

흔히 쓰레기로 치부하는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작품들을 보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전시다.

과학관은 특히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 5차례(1시, 2시, 3시, 4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7월26일과 8월9일에는 '최정현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려 옷걸이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고물작품 탄생 비화를 들을 수 있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유아 2000원이다. 문의 062-960-6210.

무등현대미술관에서도 오는 8월17일까지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2014 환경미술제 '업사이클 아트(UCYCLING ART)&디자인(DESIGN)-두 번째 만남을 보다'전은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의미를 시각적 즐거움과 예술로 승화시킨 전시다.

고장난 시계, 카메라 등을 예술품으로 재창조하는 'GOD, LOVE, DESIGN(배정경·윤세영)'팀, 순환 가능한 소비를 제안하는 패션 디자이너 'RE: CODE', 폐농기계와 부품, 고철 등을 활용해 조형물을 만든 주목동, 이성용, 김자연(sage design), 정지은(2nd B)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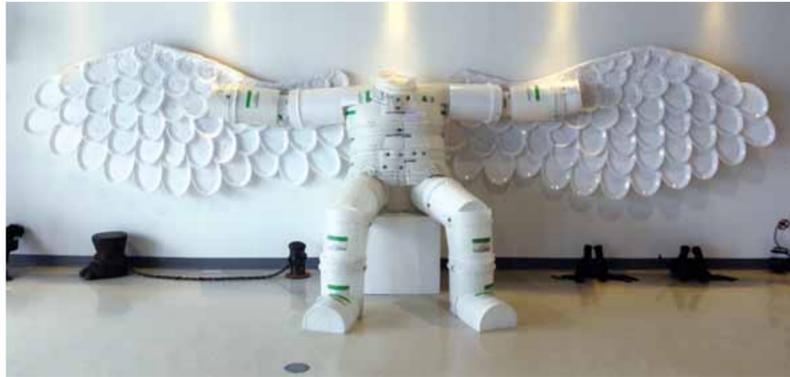
특히 전시기간 중 매주 주말에는 미술관 앞마당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ART CAMPING' 행사가 열린다. 현수막으로 만든 파우치, 공용 텐트·낙하산으로 만든 파우치, 오래된 시계로 만든 반지·목걸이 등 액세서리, 폐지전기로 만든 조명 등 디자인 제품이 함께 판매된다. 문의 062-960-6210.

광주시립미술관과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는 오는 10월19일까지 '알록달록 그림책 놀이터'전을 연다. 전시에는 이수지, 이영경, 오정택, 선우, 물물숲 그림책 팀의 그림책 원화 50여점이 전시된다.

올 여름방학은

미술관·박물관 전시·교육·체험프로 다채

'상상력 놀이터'에서



최정현 작 '우주 천사 슈트'

국립광주과학관 9월 14일까지

'반쪽이의 상상력 과학관'전

생활폐품·고물로 작품 만들어

광주시립미술관·비룡소 10월19일까지

'알록달록 그림책 놀이터'전

무등현대미술관 8월 17일까지

'업사이클 아트 & 디자인'전

주말엔 앞마당서 '아트 캠핑'

국립광주박물관 '청소년 캠프'

시립민속박물관 '역사문화산책'

원뿔뿐만 아니라 그림책 영상, 그림자놀이, 입체 일러스트 모형, 그림책 장면을 재현한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전시돼 그림책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우리 문화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0일까지 '박물관 청소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8일부터 8월1일까지(오전 9시30분~11시30분)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신장동 유적, 남도 옛그림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탐방, '남도문화 V-고흥' 특별전 감상, 우리 고장의 불교문화 이론 교육, 박물관과 큐레이터에 대한 설명, 화집 만들기



▲최정현 작 '고슴도치'



김자연 작 'watch keyring'

등으로 이론 및 전시, 체험학습이 병행된다.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중학생으로 선착순 7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접수는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문의 062-570-7000.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제는 '맛나는 남도! 신나는 남도!'다.

오는 29~3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용, 30일~8월1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용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남도의 대표적인 '맛'의 종류와 유래 등에 배우고, 전통과자를 만든다. 둘째 날에는 직접 장고를 만들고 풍물놀이를 체험하게 된다. 문의 062-613-5337.

국립광주과학관도 오는 30일과 31일 광주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4 과학·발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간이스터지 만들기 체험, 광주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체험 등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향 가득한 대숲에서



▶'대숲에서-선비의 정원에 들다'

광주 롯데갤러리 정광희전 ... 29일까지

대나무가 먹을 입었다. 굵디 굵디 대나무 줄기에 먹 입은 종이가 고서 조각이 붙었다. 전체적으로 진한 먹물은 대나무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점차 얼어진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수묵의 농담이 설치 작품에서 펼쳐진다. 갤러리는 곧 대숲으로 다가온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29일까지 정광희씨를 초대해 '대숲에서-선비의 정원에 들다'전을 연다.

정씨는 장지를 일정한 두께로 접어서 얇고 긴 합판을 감싼 뒤 고서에서 떼어낸 작은 종이 조각들을 붙이는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앞두고 대나무에 매료됐다. 합판도 대나무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의 중요 소재인 '먹'과 '물'만은 여전히다. 그는 먹과 물로 대나무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담았다.

작가는 그 과정에서 옛 선비들의 정신을 부각시킨다. 대나무의 기계처럼 속세에 흔들리지 않았던 선비정신을.

호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정씨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북극제던전시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

여름밤을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호수공원에서 오페라 듣거나

광장음악회, 19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

'한여름밤 호수 공원 음악회.' 광장음악회 60번째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8시 광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김혜미·이환희, 테너 김백호, 바리톤 박영국씨 등이 오페라 아리아,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오페라 '보헤미안 소녀' 중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

티카나' 중 '오! 플라, 봄꽃처럼 사랑스리우라', 영화 '포기와 베스' 중 'Summertime', 드라마 '대장금' ost '하랑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 'All I ask of you'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이우신·추선호(트럼펫), 함인호(호른), 서용일(트럼본), 김세훈(튜바)씨로 구성된 CNS금관5중주도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엔리코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비틀즈의 '렛잇비', 영화 '겨울왕국' 메들리, 흑인 영가 '성자의 행진'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장에서 라인댄스 추거나

광주여성재단 건강체조 발표회... 18일 유스퀘어광장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운자)은 광주라인댄스무용단과 함께 '여성건강 콘텐츠-광주여성건강댄스체조'를 개발, 시민 발표회를 연다. 18일 오후 8시 유스퀘어광장.

시민발표회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라인댄스무용단의 광주여성건강댄스 시범과 시민들이 동작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여성 건강댄스는 라인댄스를 기본 안무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신부, 직장여성, 일반여성 대상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건강댄스는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회사, 학교, 공공기관, 단체, 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인댄스는 문자 그대로 앞줄과 옆줄의 라인을 만들어 춤을 추는 것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같은 동작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추는 댄스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과 리듬감 향상, 자세교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댄스로 비만, 골다공증, 치매예방, 근골격계 향상 등 여성 건강에 좋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지역 선사·고대문화 역사 조명 국제학술대회

전남문화재단연구소 18~19일

전남문화재단연구소가 오는 18~19일 전남여성플라자 대회의실에 전남지역 선사·고대문화 역사를 알리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일 고고학 및 고대사 관련 연구자, 전남도·국립박물관·문화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 지역이 고대 동아시아 교류와 해양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18일에는 최상환 한국고고학회장(목포대 교수)의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고대 동아시아와 전남 서남해지역의 항로'(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 '9세기 중국 강남 연해지구와 한반도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리메이즈·중국 절강공상대 교수), '5·6세기 백제, 영산강유역과 왜의 교섭'(다카타 칸타·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19일에는 나주국립박물관, 반남고분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관 등 전남지역 유적과 박물관 답사를 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680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문학춘추 문학세미나 21일 무안서

문학춘추작가회(회장 노남집)가 주최하고 국립국어원, (사)전남문인협회, (사)한림문학재단이 후원하는 제6회 문학세미나가 오는 21일 무안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다성 초의선사 탄생지와 무안 오승우미술관 등에서 박형철 원로시인, 이명재 문학평론가(중앙대 명예교수) 이정석 문학평론가(아동문학가), 박형동 전남문인협회 회장, 이정남 서양화가, 정형택 영광문화원장(시인) 등 70여 명의 문인이 참여해 펼쳐진다.

제1부 지역 탐방은 박종길 사진작가의 안내로 다성 초의선사 탄생지를 둘러보고, 오승우미술관과 함평군 황금박쥐전시관을 둘러본다. 제2부는 '우리말 다듬기' 시간과 이정석 평론가의 '문학창작론' 강연이 펼쳐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주요 KOREAL 한국관광공사

8월 1일(금) 무박2일 정동진/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기차여행

시간	일정
20:0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관광
14:20	동해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3:00	광주역/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

8월 8일(금) 무박2일 정동진/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기차여행

시간	일정
20:00	광주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관광
14:20	신기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2:00	광주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